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자료의 분석과 검토

Analysis and Review of the Art History Materials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저자 (Authors)	최응천 Choi, Eung Chon
출처 (Source)	미술사학 , (42), 2021.8, 63-99 (37 pages) Art History , (42), 2021.8, 63-99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93026
APA Style	최응천 (2021).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자료의 분석과 검토. 미술사학, (42), 63-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31 16: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자료의 분석과 검토

최응천*

- I. 머리말
- II. 『三國遺事』에 나타난 미술사 자료와 분석
 - 1. 卷三 塔像 第四 篇
 - 2. 기타 『三國遺事』 편
- III. 맺음말

I. 머리말

『三國遺事』는 몽고의 전화에 휩싸였던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한 불교 지식인의 역사서이다. 이전의 불교 역사서들이 주로 승려들의 전기로 구성된 반면에 이 책에서는 실천신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불교사를 다루었고 불국토 및 호국 불교사상을 부각하여 국가에 대한 불교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연스님은 『三國史記』에서 제외된 고대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三國遺事』를 편찬하였다. 古記·寺誌·금석문·고문서·사서·僧傳·문집 등을 광범하게 수집함은 물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발굴해낸 민간전승의 수많은 설화와 전설까지 주요 자료로 제시하여 그 가치를 더한다. 이 책에서 神異는 일연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역사인식으로 중국 등 다른 문화권의 역사 인식과 비교되는 상징적 의미까지를 파악하여 한국문화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興法 이하 불교전반에 관한 내용을 일곱 편목으로 나눈 구성은 이 책이 이전의 불교 사서들에 비해 불교사의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三國遺事』에 관한 사료적 가치는 역사학계와 불교학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고 또 일찍부터 인용되어 왔다. 그 가운데 『三國遺事』의 가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塔像編이다. 불교 미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塔像이었으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 전래 이후 가장 먼저 제작이 이루어진 것도 불탑과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료에서 볼 수 없는 불교미술 분야의 탐상편을 별도

* 이 글은 2019년 8월 30~31일 한국국학진흥원 개최의 “三國遺事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문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자료의 분석과 검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로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연스님이 남다른 불교 미술사적 식견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탐상편 외에도 『三國遺事』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한 고대 미술품의 기원이나 명칭을 규명할 수 있거나 용도 등에 관해서 다른 사료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

본 글은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소개된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발췌하여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 미술사적 가치를 제시해 본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술사 관련 자료를 탐상편과 다른 편에서 언급된 미술사 관련 내용으로 나누고 여기에 언급된 미술사 관련 자료를 유형별, 성격별로 일차적으로 정리한 후 그에 관련된 의미와 중요성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다. 이러한 사료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다루어졌거나 다른 세부 논문에서 소개된 것은 주로 그 부분을 인용하거나 각주로 처리하였다. 여기에 사찰의 창건과 연혁에 관련된 내용은 소략하더라도 앞으로 폐사지 조사나 종파 문제 등을 다룰 때 참고가 될 수 있기에 전부 게재하였다. 또한 인용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와 대시로 강조하였고 그 문단 말미에 필자의 주를 달아 부연 설명하였다.

II. 『三國遺事』에 나타난 미술사 자료와 분석

1. 卷三 塔像 第四 篇

1) 寺址의 創建과 沿革

(1) 迦葉佛宴坐石 : “신라의 月城 동쪽 龍宮 남쪽에 迦葉佛의 宴坐石이 있는데 그 땅은 곧 前佛 시대의 절터이고, 지금의 皇龍寺 땅은 곧 일곱 절의 하나이다.” 국사를 살펴보면, 眞興王 즉 위 14년 開國 3년 계유 2월에 월성 동쪽에 새로 궁을 세우는데 그곳에 黃龍이 나타나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고쳐서 黃龍寺라고 했다. 연좌석은 佛殿의 뒤쪽에 있었다. 일찍이 한 번 봤는데 돌의 높이는 5, 6척이나 둘레는 겨우 3주(肘)이고 우뚝하게 서 있으며 그 위는 편편하다. 진흥왕이 절을 세운 이후로 두 번이나 화재를 겪어 돌에 갈라진 곳이 있어서 절의 중이 여기에 쇠를 붙여서 보호하였다.

(황룡사 창건의 인연과 가섭불이 앉았던 연좌석으로 추정되는 심초석의 개석이 지금도 남아있음. 특히 심초석 사리공 안에서 발견된 사리구의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중건 당시의 것과 신라 창건 때 심초석 주변에서 발견된 진단구로 나눌 수 있음. 황룡사의 폐사 시기가 몽고의 침입 때임을 기록함)

(2) 金官城婆娑石塔 : 제8대 鍾知王 2년 임진(452년)에 이르러서야 그 땅에 절을 세웠다. 또 王后寺 (아도(阿道) 눌지왕(訥祗王)의 시대로 범흥왕대의 전이다.)를 창건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겸하여 남쪽의 왜를 진압하고 있는데 가락국 본기에 자세히 보인다.

(가야국 최초의 사찰명과 5세기 중반인 452년에 창건된 왕후사란 사찰명 확인)

(3) 高麗靈塔寺 : 釋普德은 자가 智法이고 전 고구려 龍岡縣 사람이라고 한다. ... 성의 서쪽 大寶山 동굴 아래에 이르러 참선을 하는데 어떤 神인이 와서 청하기를 “이 땅에 와서 살라”고 하고 곧 앞에 석장을 두고 그 땅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아래에 八面七層石塔이 있다.” 그곳을 파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인하여 精舍를 세우고 靈塔寺라고 하고서 그곳에서 살았다.

(고구려 평양성 서쪽에 세워진 영탑사의 창건 유래와 고구려 팔각 7층석탑의 존재)

(4) 皇龍寺丈六 : 신라 제24대 眞興王 즉위 14년 계유 2월 장차 궁궐을 龍宮의 남쪽에 지으려 하는데 黃龍이 그 땅에 나타나서 이에 고쳐서 절을 짓고 皇龍寺라고 하였다. 기축년(569년)에 이르러 담을 두르고 17년 만에 바야흐로 완성하였다. 대덕 慈藏이 당으로 유학하여 五臺山에 이르러 문수보살의 현신이 감응하여 비결을 주고 인하여 부탁하여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황룡사는 곧 석가와 迦葉佛이 강연하던 땅으로 宴坐石이 아직 있다.

... 절의 기록에는 眞平王 5년 갑진(584)에 金堂이 조성되었고, 선덕왕대 절의 첫 주지는 진골인 歡喜師였고, 제2주지는 慈藏國統이고 그 다음은 國統 惠訓, 그 다음은 龐律師이다”

(황룡사의 정확한 창건시기→ 552년에 시작되어 17년 만에 완공된 점. 금당의 조성시기는 584년이며 첫 주지가 환희사, 두 번째 주지가 자장국통임을 알 수 있음)

(5) 臺山五萬眞身 : ... 법사는 眞觀 17년(643)에 이 산에 이르러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하였으나 3일 동안 날씨가 어두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 다시 元寧寺에 가서 살다가 문수보살을 뵈니 이르기를, “침딩굴이 있는 곳으로 가라.” 고 하였으니 지금의 淨巖寺가 이것이다. ... 그 후 頭陀 信義는 곧 梵日의 문인이었던 사람인데 와서 자장법사가 쉬었던 자리를 찾아서 암자를 짓고 거처하였다. 신의가 죽은 뒤 암자 또한 오래도록 폐하였더니 水多寺의 長老 有緣이 (암자들) 다시 짓고 거처하였는데 지금의 月精寺가 이것이다.

... 이와 같은 五萬 眞身에게 일일이 우러러 예배하였다. 매일 이른 새벽에 문수보살이 眞如院, 지금의 上院에 이르러 36가지 모양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다.

... 乙巳 3월 초 4일에 처음으로 진여원을 개창하니, 대왕이 친히 백료를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殿堂을 세우고, 아울러 문수보살의 塑像을 만들어 당 안에 모셨다.

(태백산 정암사의 창건 배경. 월정사가 수다사의 장로가 암자를 지은 곳에 관한 연기. 상원사의 전신인 진여원이 문수의 도량인 점. 당시 진여원에 소조의 문수보살상을 제작한 점)

(6) 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 형 태자는 [오대산] 中臺 남쪽 아래 眞如院 터 아랫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곳을 보고 그곳에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동생 효명은 北臺 남쪽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역시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 재위 20여 년인 神龍 원년(705) 3월 8일 비로소 진여원을 세웠다.(고 한다.)

(상원사의 전신인 진여원의 창건 시기가 705년임을 밝힘)

(7) 臺山月精寺五類聖衆 : 慈藏法師은 처음에 五臺에 이르러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산기슭에 띠집을 짓고 머물렀으나, 7일 동안이나 보이지 않으므로 妙梵山으로 가서 淨岩寺를 세웠다. 그 후에 信孝居士라는 이가 있었는데, 혹은 幼童菩薩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 이 月精寺에는 자장이 처음에 띠집을 짓고, 다음 신희거사가 와서 살았고, 그 다음에 梵日의 문인 信義頭陀가 와서 암자를 세우고 살았다. 그 후 水多寺의 長老 有緣이 와서 살아, 점차 큰 절을 이루었다. 절의 다섯 성중과 9층 석탑은 모두 성자의 자취이다.

(정암사가 자장이 창건한 절. 월정사도 자장이 창건한 창사의 연기 및 수다사의 유연이 월정사 중창함 → 고려 초기로 보이는 9층석탑의 완공)

(8) 天龍寺 : 東都의 南山 남쪽에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세상에서는 高位山이라고 한다. 그 산의 양지쪽에 절이 있는데, 속칭 高寺 혹은 天龍寺라고도 한다.

(경주 남산에 남쪽 절 이름이 고사, 또는 천룡사. 천룡사가 남산에 있는 절로 확인됨)

(9) 鑿藏寺彌陀殿 : 서울의 동북쪽 2리쯤 되는 暗谷村의 북쪽에 鑿藏寺가 있었다. 제38대 元聖大王의 아버지 大阿干 孝讓, (즉)추봉된 明德大王이 숙부 波珍噉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절이다. … 절의 위쪽에 彌陀古殿이 있는데 … 근래에 와서 불전은 무너졌으나 절만은 남아 있다.

(무장사의 창건 배경. 절 위편에 미타전이 있어 아미타불 봉안. 고려시대에 사라짐)

(10) 伯嚴寺石塔舍利 : 伯嚴禪寺는 草八縣 [지금의 草溪]에 있는데, … 앞 왕조인 신라 때 北宅廳 터를 회사하여 이 절을 세웠더니 중간에 오랫동안 폐사되었고, 지난 丙寅年(906)에 沙木谷의 陽孚和尚이 고쳐지어 주지가 되었다가 丁丑(917)에 세상을 떠났다. 乙酉年(925) 曠陽山의 兢讓和尚이 와서 10년을 살다가 또 乙未年(935)에 다시 회양산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神卓和尚이 南原 白崑藪로부터 이 절에 와서 법에 따라 주지가 되었다.

(신라 때 세워진 폐사를 906년에 양부회상이 중창하고 고려시대 925년 금양화상이 머문 점. 신탁 화상이 주지가 됨.)

2) 廢寺址의 위치 확인

(1) 靈鷲寺 : … 제31대 왕 神文王 때인 永淳 2년 癸未 … 서울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어 그 縣廳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에 절을 세워 靈鷲寺라고 하였다.

(동래 쪽에 신라 683년에 영취사 창건 → 현청을 옮긴 자리 위에 사찰 창건한 위치 확인)

(2)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怛怛朴朴 : 白月山兩聖成道記에는 “白月山은 신라 구사군의 북쪽에 있다. (옛 屈自郡으로 지금의 義安郡이다.) … 부득은 懷眞庵에 살았는데, 혹 壤寺 (지금의 懷眞洞에 있는 옛 절터가 이것이다.)라고 했고, 박박은 瑠璃光寺 (지금 梨山 위에 있는 절터가 이것이다.)에 살았다. … 부득은 부지런히 彌勒을 구했고 박박은 彌陀을 예배하고 염송하였다. … 3년이 채 못된 景龍 3년 己酉 4월 8일, 즉 聖德王 즉위 8년이였다.

… 天寶 14년 乙未(755년)에 신라 景德王이 즉위하여 … 이 일을 듣고 丁酉歲(757년)에 사자를 보내 대가람을 창건하고 白月山南寺라고 하였다.

(백월산에 있는 사찰 관련 조사를 통해 회진암, 양사, 유리광사의 흔적 확인이 필요하며 757년에 창건된 백원남사는 대가람이란 점에서 사지의 정확한 위치 규명될 수 있음¹⁾)

(3) 有德寺 : 신라의 太夫角干 崔有德이 자기의 집을 희사하여 절로 삼고 이름을 有德이라고 하였다. (그의 먼 후손인 三韓功臣 최언위는 (유덕의) 진영을 걸어 모시고 이어 비를 세웠다고 한다.

(신라 태대각간의 지위를 지닌 최유덕이 집을 희사하여 유덕사를 세움. 후손에 의한 진영 봉안과 비 건립)

3) 佛敎彫刻의 제작 시기와 조성 배경

(1) 皇龍寺丈六 :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남쪽에 큰 배가 河曲縣 絲浦 (지금 울주 谷浦이다.)에 정박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첩문이 있었는데 “西竺의 阿育王이 황철(黃鐵) 5만 7천근과 황금 3만 푼 (別傳에는 철 40만 7천근, 금 천냥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인 듯하다. 혹은 3만 7천근이라고 한다.)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고 축원하여 ‘원컨대 인연이 있는 나라에 이르러 丈六尊容을 이루어라’라고 하고, 아울러 一佛二菩薩像의 모형도 실었다.”

현의 관리가 장계를 갖추어 왕에게 아뢰니 사자를 시켜 그 현의 성 동쪽 시원하고 높은 곳을 골라 東竺寺를 창건하고 그 삼존불을 맞아서 안치하였다. 그 금과 철은 서울로 옮겨와서 大建 6년

¹ 文明大, 「三國遺事 南白月二聖條와 新羅 法相宗美術 -法相宗美術研究 5-, 『美術史學』3(미술사학연구회, 1991), pp. 9-33; 지강이,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18(동아시아문화 학술연구재단, 2010), pp. 61-83.

갑오 3월 (사증기에는 계사 10월 17일(573년)이라고 한다.)에 장육존상을 주성하여 한 번에 이루었다. 무게는 3만 5천 7근으로 황금 1만 1백 9십 8푼이 들어갔고, 두 보살에는 철 1만 2천 근과 황금 1만 1백 3십 6푼이 들어갔다. 황룡사에 안치하였다. … 다음 해(575)에 장육존상이 눈물을 흘렸는데 발꿈치까지 이르러 땅 1척을 적셨다. 대왕이 승하할 조짐이었다. 혹은 존상이 진평왕대에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잘못이다.

… 진흥왕이 그것을 文仍林에서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相好가 다 갖추어졌다. … 지금 변화가 이미 있어서 큰 불상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서 사라졌고 작은 석가상은 아직 남아 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573년 진흥왕대 이루어졌으며 인도 아육왕이 조성하여 보낸 것으로 언급한 내용은 결국 당시 인도 중국에서 유행한 아쇼카왕 스타일의 굽타 양식을 반영한 것이란 견해.² 이 장육존상의 조성에 소요된 중량으로 미루어 상당한 크기의 장육상이었음을 현존하는 대좌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음. 특히 문익림에서 주조된 사실과 몽고란으로 인한 전쟁으로 다 사라졌고 작은 석가상이 있었던 사실)

(2)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 이듬해 乙未에 芬皇寺의 藥師銅像을 주조하였는데 무게가 30만 6천 7백 근이요, 장인은 本彼部 强古乃未이었다.

(분황사의 금동약사불상이 경덕왕 을미년 755년에 주조된 점. 주조 당시의 중량(306,700근)과 제작자가 본피부에 속한 강고내말이란 장인의 이름 확인)

(3) 靈妙寺丈六 : 善德王이 절을 창건하여 소상을 만든 인연에 관하여는 모두 《良志法師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 景德王 즉위 23년에 丈六을 改金하였는데 (비용으로) 租가 2만 3천 7백 섬이었다. (良志傳)에는 불상을 처음 만들 때의 비용이라고 하였다.

(선덕왕이 영묘사를 창건하고 소조상을 만든 후 경덕왕 23년 764년에 개금된 점. 비용을 조로 환산)

(4) 四佛山掘佛山万佛山 : 竹嶺 동쪽 1백리 가량 떨어진 마을에 높은 산이 있는데, 眞平王 46년 甲申에 홀연히 사면이 한 발이나 되는 큰 돌에 四方如來를 조각하고 모두 붉은 비단으로 감싼 것이 하늘로부터 그 산 정상에 떨어졌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쳐다보고 예경한 후 드디어 그 바위 곁에 절을 창건하고 이름을 大乘寺라 하였다. … 그 산을 亦德山이라고 하며, 혹은 四佛山이라고도 한다.

(죽령 사불산에 봉안된 사방불의 조성시기(진평왕 46년; 624년), 대승사의 창건 배경. 지금도 대승사 옆 사불산 정상에는 마모가 심하지만 사방불이 산 정상에 남아있음. 삼국시대 사방불 연구의 중

² 金理那,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佛像」, 『眞檀學報』46·47(진단학회, 1979), pp. 195-215.

요 자료)

(5) 또한 景德王이 栢栗寺에 행차하여 산 아래에 다다랐을 때 땅속에서 엄불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사람을 시켜서 파보라고 하니 큰 바위가 있는데, 사면에는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절을 창건하고 그 이름을 掘佛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그릇되이 掘石이라고 한다.³

(백을사 옆에 있는 사방불의 조성은 경덕왕 재위 시기(742~764) → 신라 사방불의 도상 연구 및 8세기 중엽 경 중국을 통해 전래된 굽타 양식의 수용과 십일면 육비 관음과 같은 밀교 도상의 수용을 보여 줌.⁴ 실제로 이곳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1183년명 굴불사지 출토 반자에는 ‘掘石寺’로 명칭 기록됨)

(6) 生義寺石弥勒 : 善德王때 生義라는 스님이 항상 道中寺에 거주하였다. … 꿈을 꾀 후 친구와 더불어 표시해 둔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石彌勒이 나오므로 三花嶺위에 안치하였다. 선덕왕 13년 甲辰年에 (그곳에) 절을 짓고 살았으니 후에 生義寺라 이름하였다.

(충담스님이 경주 남산에서 차공양을 하였던 돌미륵상은 선덕왕 13년인 644년 조성되었고 봉안 사찰이 생의사란 점. 후에 황수영⁵에 의해 남산 장창곡으로 옮겨졌다가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석조 삼존상이 바로 삼화령 위에 안치한 석조삼존상임을 밝힘으로써 그 제작시기를 신라 7세기 전반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

(7) 栢栗寺 : 鷄林의 북쪽 산을 金剛嶺이라고 하는데 (그) 산의 남쪽에 栢栗寺가 있다. 절에는大悲의 像 한 구가 있는데, 언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험하고 이로움이 자못 현저하였다. 혹은 중국의 神匠이 衆生寺의 불상을 조성할 때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한다.

(백률사의 위치가 확인되며 이 절에 대비 관음상이 있어 중생사의 불상 조성 때 같이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8)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 “白月山은 신라 구사군의 북쪽에 있다. (옛 屈自郡으로 지금의 義安郡이다.) 丁酉歲(757)에 사자를 보내 대가람을 창건하고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라고 하였다. 廣德 2년 (고기에는 大曆 원년이라고 했는데, 또한 잘못이다.) 甲辰 7월 15일(764)에 절이 완성되었다. 다시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고 편액을 現身成道 彌勒之殿이라고 하였다.

³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眞檀學報』39(진단학회, 1975), pp. 42-68.

⁴ “大定二十三年癸卯四月日東京北山 掘石寺排入重柒斤欠知造前副戶長李伯, 瑜棟梁道人孝英大匠義成”(側面陰刻), 최응천,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특히 鑄造方法和 銘文分析을 중심으로-」, 『佛敎美術』9(동국대 박물관, 1988), pp. 63-117.

⁵ 황수영, 『한국불상의 연구』(삼화출판사, 1973)

또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여 강당에 봉안했는데, 남은 물이 모자라 (몸에) 두루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미타상에는 역시 얼룩진 흔적이 있다. (그) 편액은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고 하였다.

(신라 구산군(의안) 백월산에 있는 남백월사의 창건은 757년이며 764년에 절을 완성. 미륵존상을 주불로 금당(현신성도 미륵지전) 조성. 아미타불은 강당(현신성도무량수전)에 봉안한 점. 신라 불교의 미륵 신앙과 아미타 신앙의 유행과 중요도 보여줌⁶⁾)

(9)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 옛날 義湘 법사가 처음으로 당나라에서 돌아와 觀音보살(大悲)의 眞身이 이 해변의 굴 안에 산다고 듣고, 이로 인하여 洛山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대개 西域의 寶陀洛伽山이 있는 까닭이다. …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 상을 빚어 모시니 … 이로 인해 그 절 이름을 낙산이라고 하고, 법사는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났다.

(의상에 의한 낙산사 창사의 배경을 알 수 있으며 금당 안에는 관음상을 주존으로 모셨음)

(10) 臺山五萬眞身 : … 황색(방)인 중대의 진여원 중앙에 진흙으로 빚은 문수보살의 不動을 봉안하고, 뒷벽에는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36가지로 변화하는 모양을 그려 봉안하고, (진여원 중앙에 진흙의 소상으로 제작한 문수보살상과 후불 벽화로 비로자나불을 그렸음)

(11) 南月山 (또는 甘山寺라고 한다) : 이 절은 서울의 동남쪽 20리 가량 되는 곳에 있다. 金堂의 주불 彌勒尊像火光後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開元 7년 己未 2월 15일에 重阿嚙 金志誠이 돌아가신 아버지 仁章 一吉干과 돌아가신 어머니 觀肖里夫人을 위하여 甘山寺 한 채와 돌미륵 한 구를 정성껏 조성하고, 겸하여 愷元 伊嚙, 아우 良誠 小舍, 玄度師, 누이 古巴里, 전처 古老里, 후처 阿好里와 또한 庶兄 及 漢 一吉嚙, 一幢 薩嚙, 聰敏 大舍, 누이동생 首胎買 등을 위하여 함께 이 선한 일을 경영하였다. … 彌陀佛火光後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아찬 金志全은 일찍이 尙衣로서 임금을 모셨고, 또 執事侍郎으로 있다가 나이 67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롭게 지냈다. 國主大王과 이찬 개원,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 일길간, 돌아가신 어머니, 죽은 동생 소사 梁誠, 沙門 玄度, 죽은 아내 古路里, 죽은 누이 동생 古巴里, 또 처 阿好里 등을 위하여 甘山의 莊田을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이어 石彌陀 한 구를 조성하여 돌아가신 아버지 인장 일길간을 받들어 위하였다.

(원래 감산사에 봉안된 아미타불과 미륵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이며 광배 후면에 새겨진 조성기를 통해 통일신라 8세기 불상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⁷⁾)

6 文明大, 「三國遺事 南白月二聖條와 新羅 法相宗美術 -法相宗美術研究 5-, 『美術史學』3(미술사학연구회, 1991), pp. 9-33.

7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 : 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4) 불탑의 제작시기와 조성 배경

(1) 遼東城育王塔 : 고려 遼東城 옆의 탑은 옛 노인들이 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옆에 세 겹의 土塔이 있었는데 위가 솔을 얹어놓은 것과 같았으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가서 승려를 찾으니 오직 잡초만 있었고 땅을 1장(丈) 정도 파 보았더니 지팡이와 신을 얻었고 또 파보니 銘을 얻었는데 위에 梵書가 쓰여 있었다. ... 이로 인하여 信心이 생겨 七重木塔을 세웠는데 후에 불교가 비로소 들어와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게 되었다. 지금 다시 그 높이를 줄였는데 본래의 탑은 썩어서 무너졌다. ... 西漢과 三國의 地理志를 살펴보면, 遼東성은 압록강 밖에 있고 漢의 幽州에 속한다.

《古傳》을 살펴보면 아욱왕은 귀신의 무리에게 명하여 9억의 사람이 사는 땅마다 탑 하나를 세우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염부계 안에 8만 4천개를 세워 큰 돌 속에 숨겼다고 한다.

(고구려 압록강 밖의 유주 요동성 옆에 세워진 탑은 원래 토탑이었으며 상륜부의 복발이 남아 있었음. 이후 7층 목탑을 세웠으나 층수가 줄어들고 썩어서 무너진 사실. 초기 불탑을 8만 4천의 아욱왕탑에 비유함)

(2) 高麗靈塔寺 : 釋 普德은 字가 智法이고 전 고(구)려 龍岡縣 사람이라고 한다. 항상 平壤城에 살았는데 ... “이 아래에 八面七層石塔이 있다.” 그곳을 파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인하여 精舍를 세우고 靈塔寺라고 하고서 그곳에서 살았다.

(고구려 평양성 쪽에 팔면칠층석탑이 있었으며 그 곳에 영탑사를 세움)

(3) 金官城婆娑石塔 : 金官 虎溪寺의 婆娑石塔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 읍이 金官국이었을 때 시조 首露王의 비인 許皇后 黃玉이 東漢 建武 24년 무신에 서역의 阿踰陀國에서 싣고 온 것이다. ... 탑은 모가 4면으로 5층이고 그 조각이 매우 특이하다. 돌에 미세한 붉은 반점 색이 있고 그 질은 무르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가야 호계사의 파사석탑이 있으며 이는 수로왕대 허황후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 허황후릉 앞 파사석탑의 외양으로 볼 때 본래부터 불탑이었다는 증거는 없음.⁸ 파사석탑은 『三國遺事』 편찬 이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원래부터 사면 5층 석탑에 조각이 특이하고 돌에 미세한 반점이 있는 점에서 수입된 돌로 보고 있으며 그 재질도 각력암으로 규명됨)

(4) 皇龍寺九層塔 : 신라 제27대 선덕왕 즉위 5년, 貞觀 10년 병신에 尙書省에서 당나라에 유학

中心으로」, 『역사학보』62(역사학회, 1974), pp. 75-105.

8 이거룡, 「파사석탑(婆娑石塔)의 유래와 조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36(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pp. 641-675.

하여 곧 오대에서 문수보살이 불법을 주는 것을 감응하여 얻었다.

백제에서 공장을 요청하여 9층탑을 건립하다.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당 황제가 하사한 경전·불상·가사·폐백을 가지고 귀국하여 탑을 건립하는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선덕왕이 군신에게 의논하였는데, 신하들이 “백제에서 工匠을 칭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에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서 백제에게 청하였다. 공장 阿非知가 명을 받고 와서 목재와 석재를 경영하였고 伊干 龍春(혹은 龍樹라고 쓰기도 한다.)이 주관하여 小匠 200명을 이끌었다. 처음 刹柱를 세우는 날에 공장이 본국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꿈꾸었다. 공장은 곧 의심이 나서 손을 멈추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두컴컴한 속에서 한 노승과 한 장사가 金殿門에서 나와 곧 그 기둥을 세우고 노승과 장사는 모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공장은 이에 마음을 고쳐먹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

刹柱記에는 “鐵盤 이상의 높이가 42척이고 이하는 183척이다”라고 했다.

진흥왕 계유에 절을 세운 후 선덕왕대 정관 19년 乙巳(645)에 탑을 처음 이루어졌다. 32대 효소왕 즉위 7년, 聖曆 원년 戊戌 6월(698)에 벼락이 쳤다. … 제33대 성덕왕 庚申(720)에 다시 세웠다. 48대 경문왕 戊子(868) 6월에 두 번째로 벼락이 쳤고 같은 왕대에 세 번째로 다시 세웠다. 9 본조 光宗 즉위 5년 癸丑 10월(953)에 세 번째로 벼락이 쳤고 顯宗 13년 신유(1021)에 네 번째로 다시 세웠다. 또 靖宗 2년 을해(1035)에 네 번째로 벼락이 쳤고 또 文宗 甲辰年(1064)에 다섯 번째로 다시 세웠다. 또 獻宗 말년 乙亥(1095)에 다섯 번째로 벼락이 쳤고 肅宗 丙子(1096)에 여섯 번째로 다시 세웠다. 또 高宗 25년 戊戌(1238) 겨울에 몽고의 병화로 탑, 장육존상, 절의 殿宇가 모두 타버렸다.

(『三國史記』에도 기록되었지만 황룡사 탑의 건립에 아버지가 백제 장인 2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탑 건립 → 백제식 지하 심초와 사리공 확인. চাল주기에 탑의 높이를 상륜까지 합쳐 225척인 점. 탑이 645년에 완공된 후 698년 벼락, 720년에 중창. 868년에 2번째 벼락, 같은 왕대 3중창. 고려 953년에 세 번째 벼락, 1021년에 4중창. 1035년에 네 번째 벼락으로 1064년 5중창. 1095년 다섯 번째 벼락, 1096년 6중창 후 1238년 겨울에 몽고의 병화로 탑과 장육존상이 전소됨을 밝힘)

(5) 伯嚴寺石塔舍利 : … 또 咸雍 원년 11월 이 절의 주지인 得與 徵定 大師 釋 秀立이 이절의 常規 10조를 정하였는데, 새로 5층 석탑을 세워 진신 불사리 42알을 맞아 봉안하고 私財로 寶를 적립하여 해마다 공양할 것이 제 1조였다. … 업흔, 백흔 두 사람이 집을 회사하여 절을 만들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름을 伯嚴寺라 하고 …

(고려 1065년 백엄사에 새로 5층 석탑을 세우고 사리 42과를 봉안함)

9 이 때쯤 중수한 기록이 চাল주본기로 남아있는데, 도굴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간략한 소개의 글과 사리구를 함께 다룬 논문이 있다, 黃壽永, 「新羅皇龍寺刹柱本記 -九層木塔 金銅塔誌-」, 『美術資料』16(국립중앙박물관, 1973), pp. 1-5; 黃壽永,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 চাল주본기와 그 사리구」, 『東洋學』3(동양학회, 1973), pp. 269-328.

(6) 五臺山文殊寺石塔記 : 뜰 가의 석탑은 대개 신라인이 세운 것 같다. 제작은 비록 순박하여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영험이 있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오대산 문수사 뜰 가에 있는 석탑을 신라탑으로 보지만 정교하지 못함을 언급)

5) 戒壇과 佛舍利 信仰

(1) 皇龍寺九層塔 : 자장이 오대에서 받은 사리 100알을 기둥 안과 通度寺 戒壇과 大和寺 탑에 나누어 안치하였는데 池龍의 청을 따른 것이다.

“신라에는 三寶가 있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황룡사 장육상과 구층탑, 그리고 진평왕의 天賜玉帶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받은 부처의 진신사리 100과를 황룡사 기둥(찰주 밑으로 추정) 밑과 통도사 금강계단, 태화사 탑에 나누어 봉안)

(2) 前後所藏舍利 : 眞興王 太清 3년 己巳年에 梁나라에서 沈湖를 보내어 사리 몇 알을 보내왔다. 善德王 때인 貞觀 17년 癸卯(643)년에 慈藏法師가 가지고 온 부처님의 두골과 어금니와 불사리 1백 알과 부처님이 입던 붉은 색 깃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皇龍寺 탑에 두고, 한 부분은 大和寺 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通度寺 戒壇에 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둔 곳이 상세하지 않다. 통도사 계단은 두 층으로 되어있으며 위층 가운데는 돌뚜껑을 모셔 두었는데 마치 가마솥을 얹어놓은 것 같았다. 옛날 本朝에서 전후로 두 廉使가 와서 계단에 예배를 하고 공손히 돌 뚜껑을 들어보았는데, 앞에는 큰 구멍이가 함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뒤에는 큰 두꺼비가 돌 중앙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부터는 감히 그 돌 뚜껑을 열어보지 못했다.

근래 上將軍 金利生과 侍郎 庾碩이 고종 때 왕의 명을 받아 江東을 지휘할 때 仗節을 가지고 절에 와서 돌 뚜껑을 들어 우러러 예를 하고자 하였는데 절의 스님이 예전의 일로 난처하게 여겼다.

(진흥왕 549년 중국 양나라에서 심호를 통해 사리 몇과를 들여옴. 선덕왕 643년에 자장법사가 부처의 두골, 어금니, 불사리 100과, 부처의 비라금점가사를 들여와 황룡사탑, 태화사 탑에 두고 가사와 함께 통도사 금강계단에 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상세치 않다는 초기 사리 전래 기록. 현존하는 통도사의 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 기술. 계단의 사리를 신성시하여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한 기록)

두 사람이 군사를 시켜 이것을 들었더니 (그) 속에는 작은 석함이 있고 돌함 속에는 유리통이 들어 있는데, 통 속에는 사리가 다만 네 알뿐이었다. 서로 둘러보며 우러러 공경하였는데 통이 조금 상하여 금이 간 곳이 있었다. 이에 유공이 마침 수정함 하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주하여 함께 간직해두게 하고,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니 (그때는) 江都로 도읍을 옮긴 지 4년째인 乙未

(1235)이었다.

古記에는 사리 백 개를 세 곳에 나누어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직 4개뿐이다.

(통도사 금강 계단 안에 봉안된 사리의 봉안 모습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한 유일한 기록 → 내부에 작은 석함이 있고 이함에 유리통(유리 사리병으로 추정)이 있어 4과의 사리가 있으며 유리병이 조금 상해 금이 간 곳이 있음을 설명함. 아울러 이 때 수정함을 추가로 사리함에 봉납. 그 때가 을미년 1235년으로서 백개의 사리가 4과뿐이라는 소감을 피력함)

… 唐나라 大中 5년 辛未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元弘이 부처님 어금니 (지금은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나 신라 文聖王 때이다.)와 後唐 同光 원년 癸未(923), (곧) 본조 太祖 즉위 6년 양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尹質이 가져 온 五百羅漢像은 지금 北崇山 神光寺에 있다. 大宋 宣和 원년 기묘(睿廟 15년) 조공을 바치려고 갔던 사신 鄭克永, 李之美 등이 가지고 온 부처님의 어금니는 지금 내전에 모셔두고 있는 그것이다.

(851년 당나라 가져온 부처의 어금니와 923년 양에서 가져온 오백나한상을 북송산 신광사에 보관함 → 윤질의 오백나한상은 고려사 등에도 등장함. 내전에 송나라부터 가져온 어금니를 봉안함)

… 사신들은 이미 부처님의 어금니를 얻어 가지고 와서 위에 아뢰었다. 이에 睿宗은 크게 기뻐하고 十員殿 왼쪽 小殿에 모시고 항상 전각문은 자물쇠로 걸고 밖에는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혔는데, … 壬辰歲 (강화도로) 서울을 옮길 때 내관이 바쁜 가운데 (부처님 어금니를 그만)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였다. 丙申(1236) 4월에 이르러 왕의 願堂인 神孝寺의 釋 蘊光이 부처님의 어금니에 예경하기를 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은 내신에게 칙령으로 궁 안을 두루 살펴보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십원전 소전에 사리를 모시고 매년 향등 공양하다가 1232년 임진년 강화도로 천도하던 때에 내관이 불아를 챙기지 못하여 1236년까지 찾지 못함)

… 十員殿 뜰 안에 특별히 佛牙殿을 만들어 그것을 봉안하고 … 불아전 뜰에서 侍立하여 차례로 頂戴하여 공경하였는데, 佛牙函의 구멍 사이에 들어있는 사리는 수를 알 수 없었으나 진양부에서 白銀盒에 담아 모셨다.

(다시 찾은 불아를 십원전 뜰에 불아전을 만들어 재를 올리며 봉안. 불아함 속 사리 수는 정확치 않으나 백은함에 넣어 다시 봉안함. 고려 왕실에서도 진신사리에 대한 공경이 매우 지극했음을 시사)

(3) 伯巖寺石塔舍利 : … 또 咸雍 원년 11월 이 절의 주지인 得奧微定大師 釋 秀立이 이 절의 常規 10조를 정하였는데, 새로 5층 석탑을 세워 진신 불사리 42알을 맞아 봉안하고 私財로 寶를 적립하여 해마다 공양할 것이 제 1조였다.

(고려 함흥 원년 주지 득오미대정사가 5층 석탑을 세워 진신 불사리 42과를 안치한 점)

6) 불교 공예 (범종, 사리함)

(1) (2)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 신라 제35대 景德大王이 天寶 13년 甲午에 황룡사 종을 주조하였는데 길이는 1장 3촌이요, 두께는 9촌, 무게는 49만 7천 5백 81근이었다. 시주는 孝貞 伊王三毛夫人이요, 匠人은 里上宅下典이었다. (고려) 肅宗때 다시 새로운 종을 완성하니 길이가 6척 8촌이었다.

경덕왕이 주조하고자 한 성덕대왕신종을 해공왕대 완성하다. 또 (왕은) 黃銅 12만근을 희사하여 부왕이신 聖德王을 위하여 큰 종 하나를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惠恭大王 乾運이 大曆 庚戌 12월에 有司에게 명하여 공인들을 모아 능히 그것을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이) 절은 곧 孝成王 開元 26년 戊寅(738년)에 부왕인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그러므로 鍾銘에는 ‘聖德大王神鍾之銘’이라 하였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경덕왕 754년에 황룡사 종이 주조되었으며 크기 1장 3촌, 49만 7천 5백 81근 이란 중량까지 정확히 기록함. 이를 통해 유추하면 현존하는 성덕대왕 신종의 12만근보다 3배 이상 의 금속이 소요된 점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크기인 366cm보다 최소 두배 가까운 크기였다고 추정됨.

또한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에 기록된 내용을 부합시키는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경덕왕이 완성치 못하고 손자인 해공왕 771년에 주조하여 봉덕사에 봉안한 점. 봉덕사가 738년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사실을 기록함)

(3) 四佛山掘佛山万佛山 : 모두 鐘闢이 있고 蒲牢가 있었으며 고래 모양(鯨魚)으로 종치는 방망이(撞)를 삼았다.

(통일신라 범종의 명칭에서 지금 龍鈕라고 불리는 고리가 고래를 무서워한다는 蒲牢로 불리웠으며 지금은 사라진 撞木의 모양을 고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4) 臺山五萬眞身 : 中臺인 風盧山 다른 이름으로 地盧山에는 毘盧遮那를 수위로 한 1만 문수보살의 진신이 나타나 있었다. ... 혹은 金鼓 모양으로, 혹은 金鐘 모양으로, ... 혹은 金剛杵 모양으로,

... 가지고 있던 석장은 하루에 세 번 소리를 내며 방을 세 바퀴 돌아다녔으므로 이것으로써 종과 경쇠를 삼아 때를 쫓아 수업하였다.

(金鼓라 한 쇠북의 명칭과 金剛杵란 밀교 법구의 명칭이 일찍부터 사용된 점. 석장의 소리를 통해 종과 경쇠로 삼아 수업하였다는 의식법구로서의 용도를 볼 수 있음)

(5) 前後所藏舍利 : ... 밤중에 던지는 소리가 있어 불을 켜서 살펴보니 부처님의 어금니가 든 함이었다. 함은 본래 속 한 겹은 沈香습이고, 다음 겹은 純金습이며, 다음 바깥 겹은 白銀函이고, 그

다음 바깥 겹은 瑠璃函이며, 또 그 다음 바깥 겹은 螺鈿函으로서 각 (함의) 폭은 서로 맞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만 유리함뿐이었다.

(신라 사리기의 구성과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어금니를 넣은 사리기의 구성은 안쪽에 침향으로 함을 만들고 그 바깥은 순금함, 다시 백은함과 바깥에 유리로 함을 만들고 바깥 겹은 나전함으로 중첩 봉안하는 방식을 기록함. 함과 함을 구별한 것으로 보아 뚜껑의 유무에 따라 함과 함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각 함의 폭이 크기를 줄여가며 중첩되도록 만든 것을 시사하지만 현재 유리함만 남아있다고 함. 현재 남아있는 통일신라 사리기가 대부분 유리가 가장 안쪽이며 금→은→동함으로 만든 것에 비해 유리의 순서가 다르고 바깥 상자에 나전함을 썼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신라 사리기의 또 다른 사리장엄 방식을 보여줌)

7) 불교회화

(1)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 景德王 때 한기리(漢岐里)의 여인 希明의 아이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나자 문득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芬皇寺 左殿 북쪽 벽에 그린 千手大悲 앞에 나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 빌게 하니 마침내 눈이 밝아졌다.

(분황사 북쪽 벽에 천수대비상 벽화의 존재)

(2) 興輪寺壁畫普賢 : 제54대 景明王 때 興輪寺 남문과 좌우 廊廡가 불에 탄 채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靖和와 弘繼 두 스님이 장차 시주를 모아서 수리하려고 하였다. ... “나의 願力은 普賢菩薩이 두루 玄化를 펴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 보살상을 그려서 정성스럽게 공양하여 그치지 아니함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스님은 가르침을 받들어 보현보살을 벽 사이에 공손히 그렸는데 지금도 그 상이 남아 있다.

(흥륜사의 벽면에 보현 보살상을 벽화로 그렸으며 일연스님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점)

(3) 三所觀音 衆生寺 : 그 화공은 十一面觀音像을 그려서 바치니 꿈에서 본 것과 일치하므로 그제야 황제의 뜻이 풀려서 그를 놓아주었다. ... 드디어 서로 신라국에 와서 이 절의 大悲像을 이룩하니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공경하고 기도하여 ...

(중생사의 불교조각상 뿐 아니라 11면 관음상도 불교회화로 함께 제작한 사실)

(4) 臺山五萬眞身 : 청색(靑)은 동대의 북각 밑과 북대의 남쪽 기슭 끝에 있으니 마땅히 관음방을 두어, 圓像의 관음보살과 푸른 바탕에 1만 관음상을 그려서 봉안하고, ... 적색(赤)인 남대 남면에 지장방을 두고, 원상의 지장보살과 붉은 바탕에 8대보살을 수위로 한 1만 지장보살상을 그려 봉안하고, ... 백색(白)인 서대 남면에 미타방을 두고 원상의 無量壽과 흰 바탕에 무량수여래를 수위

로 1만 대세지보살을 그려 봉안하고, … 흑색[방]인 북대 남면에 羅漢堂을 두고 원상의 釋迦와 검은 바탕에 석가여래를 수위로 5백 羅漢을 그려 봉안하고, … 황색[방]인 중대의 진여원 중앙에 진흙으로 빚은 문수보살의 不動을 봉안하고, 뒷벽에는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36가지로 변화하는 모양을 그려 봉안하고,

(관음방 → 관음보살상 뒤로 1만 관음상 불화 봉안, 지장방→ 지장보살상 뒤로 8대보살 및 1만 지장보살상 불화 봉안, 미타방→ 무량수불 뒤로 흰 바탕에 1만 대세지보살 불화, 나한당 →석가불상 뒤로 검은 바탕에 5백 나한 불화 봉안, 진여원 중앙→문수보살 소상, 뒷벽에 노란비탕의 비로자나불과 36가지 변화상 불화 봉안)

8) 박물관의 기원이 되는 신라 수장고

(1) 栢栗寺 : … 선왕께서 神笛을 얻어서 집에게 몸소 전하여 지금 玄琴과 함께 內庫에 간직해 두었는데, … 때마침 상서로운 구름이 天尊庫를 덮었다. 왕은 더욱 놀라고 두려워서 사람을 시켜 조사해보니 창고 안에 있던 거문고와 피리 두 보물이 없어졌다.

(신라 왕실에서 內庫라는 명칭의 수장고가 내려왔으며 효소왕대인 693년에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는 天尊庫라는 명칭의 수장고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서 한국 고대 박물관의 기원을 규명할 수 있음)

2. 기타 『三國遺事』 편

1) 寺刹의 創建과 沿革

(1) 卷 第二 紀異第二 万波息笛 : 제31대 神文大王의 이름은 政明이며, 성은 김씨다. 開耀 원년 辛巳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부왕(聖考)인 文武大王을 위해 동해 가에 感恩寺를 세웠다. 절에 있는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끝나 치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682)에 끝마쳤다. 금당 섬돌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 두었는데, 이는 용이 들어와서 서리고 있게 하기 위해 서였다. 대개 유언으로 유골을 간직한 곳을 大王岩이라고 하고, 절을 감은사라고 이름했으며,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刹見臺라고 하였다.

(감은사 사리기의 조성배경과 제작시기가 682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명해 줌. 감은사 가람배치의 독특한 구조가 의도적으로 문무왕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문무왕을 동해구에다 장사(火葬後 散骨)하여 그곳을 대왕암이라 하고 앞쪽에 이견대의 건립 배경을 기록)

(2) 卷 第二 紀異第二 제33대 聖德王 : 神龍 2년 丙午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의 굶주림이 심하였다. … 왕이 太宗大王을 위해 奉德寺¹⁰를 창건하고, 仁王道場을 7일 동안 열고 크게 사면하였다. (태종대왕을 위해 봉덕사를 창건한 연혁)

(3) 卷 第二 紀異第二 武王 :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彌勒三尊을 法像으로 하여 殿과 塔과 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彌勒寺 《國史》에서는 王興寺라고 했다 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여러 工人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남아 있다.

(무왕대 창건으로 전해지던 미륵사는 발굴 조사 결과 기존 백제 가람 배치와 다른 三塔三院式이며 중원에는 木塔, 동서 양쪽에 石塔을 둔 독특한 가람임이 확인되어 『三國遺事』의 三尊에 불전과 탑, 낭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운 내용과 부합됨. 그러나 2007년 미륵사탑 서탑 해체 수리시 심초석 사리공 내에서 발견된 금동탑지에 의해 미륵사가 639년 무왕의 비인 사택적덕의 딸에 의해 조성된 것이 밝혀졌고 내용 중에서도 주로 왕비가 발원하고 정재를 희사한 사실을 볼 수 있음)

(4) 卷 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 首露王의 8대손 金銿王은 정치에 부지런하고 또 참된 것을 매우 숭상하였는데 始祖母 許皇后를 위해서 그의 冥福을 빌고자 하였다. 元嘉 29년 임진에 수로왕과 허황후가 혼인한 곳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王后寺¹¹라 하였고, …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후에 長遊寺를 세웠는데 …

(수로왕과 허황후가 혼인한 장소에 왕후사를 세웠고 이후 500년이 지나 장유사를 세움)

(5) 卷 第三 興法第三 原宗興法 厭觸滅身 : 內人 들은 이를 슬피하여 좋은 터를 잡아서 蘭若를 짓고, 이름을 刺楸寺¹²라고 하였다.

10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의 北川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이다. 창건연대에 대해서 『三國遺事』 권2 기이2 聖德王條와 권3 탑상4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條의 기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一然은 후자의 기록을 신뢰하여 효성왕 2년에 세워졌다고 보았다. 두 기록을 아울러 봉덕사가 착공된 시기는 성덕왕대의 일이고, 완공이 효성왕 2년인 738년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이호영, 「신라 중세 왕실과 봉덕사」, 『사학지』9(단국사학회, 1974), pp. 3-4.

11 『東國輿地勝覽』 권32 김해도호부 古跡條에 王后寺의 구지는 장유산에 있다고 한다. 이를 『大東輿地圖』와 비교해볼 때, 지금의 장유면 장유리 남쪽의 옥녀봉에 해당한다.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102(한국사연구회, 1998), p. 36.

12 이차돈을 위하여 세운 절로 지금의 백률사로 생각된다. 이하석, 「『三國遺事』의 현장기행」, 『문예산책』(1995), p. 239.

眞興大王 즉위 5년 甲子에 大興輪寺¹³를 지었다. … 太淸 초년(547년)에 梁나라 사신 沈湖가 사리를 가져왔고, 天嘉 6년(565년)에는 陳나라 사신 劉思가 승 明觀과 함께 內經을 받들고 왔다. … 절과 절들은 별처럼 벌여 있고, 탑과 탑들은 기러기 행렬인양 늘어섰다. 法幢을 세우고 梵鏡(범종)을 매어다니, … 또 大通 원년 丁未에는 梁帝를 위하여 熊川州에 절을 짓고 이름을 大通寺¹⁴라고 하였다. … 곧 中大通 원년 己酉(529)년에 세운 것이다. 鴻隴사를 처음 세우던 丁未年(527)에는 미처 다른 곳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염축을 위한 자추사 창건. 대흥륜사 → 진흥왕 5년 창건. 547년 중국 양으로부터 심호가 사리 전래. 565년 진에서 유사가 명관, 내경 전래. 529년 공주 대통사 창건. 527년 창건)

(6) 卷 第三 興法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 : … 그때 普德화상은 盤龍寺에 있으면서 … (그는) 신통력으로 方丈을 날려 남쪽의 完山州 지금의 尙州이다. 孤大山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곧 永徽 원년 庚戌 6월이었다. 또 本傳에서는 乾封 2년 丁卯 3월 3일(667)이라고 하였다. … 지금 景福寺에 飛來方丈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보덕화상 반룡사에 거주. 667년 완산주인 전주 고대산으로 옮김 → 경복사의 비래방장)

(7) 卷 第三 興法第三 法王禁殺 : … 이듬해 庚申에는 승려 30명을 得度케 하고, 당시의 서울인 泗泚城 지금의 扶餘에 王興寺를 세우게 하여 겨우 (그) 기초를 세우다가 승하하였다. 武王이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닦은 터에 아들은 집을 지어 수십 년을 지나서 완성했는데, 그 절은 또한 彌勒寺라고도 한다. … (절은) 처음에 왕비와 함께 창건하였다.

(부여 왕흥사와 미륵사의 창건 → 미륵사 왕비와 함께 창건; 사리봉영기에는 사택적덕의 딸인 왕비의 창건으로 기록)

(8) 卷 第四 義解第五 寶壤梨木 : 처음 법사가 당에 갔다 돌아와 먼저 推火郡 奉聖寺에 머물렀다. … 이로써 절에 二聖의 眞容을 안치하였고 인하여 奉聖寺라 이름하였다. 후에 작감사로 옮겨가서 절을 크게 세우고 죽었다.

(추화군 봉성사 → 봉성사에 이성의 진용을 안치)

13 신라의 불교전래 및 공인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일찍 국가적 사찰로 창건되었고 신라 왕경 내 七處伽藍터 중의 하나인 天鏡林에 건립되었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온 최초의 승려 阿道가 창건한 사찰이라 전하며 법흥왕 14년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신라의 대가람으로 중창되어 544년(眞興王 5년)에 완공되었다. 鴻隴사는 대법회를 주관하는 도량으로서, 왕실과 국가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영험의 가람으로 존중되기도 하였다.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역주 『三國遺事』』1(이희문화사, 2002), p. 266.

14 대통사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지만, 공주시 班竹洞 일대에서 ‘大通’銘 기와가 출토되고 당간지주와 석조 등이 남아있어 반죽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공주대학교박물관, 『대통사지』(2000), pp. 10-11.

(9) 卷 第四 義解第五 二惠同塵：釋惠空은 … 거리에서 삼태기를 지고 노래하며 춤을 춰서 負簞和尙이라 불렸다. 살고 있는 절은 인하여 夫蓋寺라 이름하였는데, … 만년에 恒沙寺(지금 迎日縣 吾魚寺이다. …)로 옮겨 머물렀다. 이때 元曉가 여러 經疏를 찬술하고 있었는데 매양 법사에게 와서 질의하거나 혹은 서로 농담을 하였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개울을 따르며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 먹고 돌 위에 변을 보고 있었는데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희롱하여 말하기를 “너의 변은 내가 먹은 물고기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어사라 이름하였다.

… 또 어느 날 풀을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靈妙寺에 들어가 金堂과 좌우 經樓 및 南門의 회랑을 둘러 묶고 剛司에게 알렸다. 또한 神印宗 祖師 明朗이 새로이 金剛寺를 창건하여 낙성회를 열었을 때 덕이 높은 스님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법사만 이르지 않았다.

(혜공스님 → 부계화상으로 불려 절 이름도 부개사로 명칭. 만년 향사사(지금의 영일 오어사)에 머무름. 원효와 관련된 오어사의 창건 연기. 영묘사의 금당, 좌우 경루, 남문을 회랑으로 두른 가람배치, 신인종 조사인 명랑의 금강사 창건)

(10) 卷 第四 義解第五 慈藏定律：정관 17년 癸卯에 신라 선덕왕이 표를 올려 돌아오기를 청하니, … 자장은 신라에 경전과 불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경 1부 및 여러 幡幢·花蓋 등 福利가 될 만한 것을 요청하여 모두 실었다. … 왕은 芬皇寺에 주석하도록 명하고 《唐傳》에는 玉芬寺라 쓰여 있다.

… 이에 通度寺를 창건하여 戒壇을 짓고서 사망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였다. … 또한 태어난 마을의 집을 고쳐 元寧寺를 조영하고 … 만년에 서울을 떠나 江陵郡(지금의 溟州이다). 水多寺를 창건하고 살았다. … 자장은 태백산에 가서 그를 찾았는데 … “이곳이 이른바 葛蟠地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石南院(지금의 淨岩寺이다.)을 창건하고서 문수대성이 내려올 것을 기다렸다. … 자장이 그것을 듣고 비로소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갖추고 빛을 찾아 남쪽 고개로 쫓아 올라갔으나 이미 묘연하여 미치지 못하고 드디어 쓰러져서 죽었다. 유골을 다비하여 굴속에 안장하였다.

무릇 자장이 세운 절과 탑이 10여 곳인데, … 자장의 道具·布襪과 태화지 용이 바친 木鴨枕과 석존의 가사 등은 모두 통도사에 있다.

(자장이 당으로부터 대장경 1부, 번당, 화개 가져옴. 분황사에 주석.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단 건립. 원녕사의 조영, 만년 강릉의 수다사 창건, 석남원(정암사) 창건, 유골을 다비하여 굴속에 안장. 자장이 세운 절과 탑이 10여 곳. 자장의 다구, 포말, 목압침, 석존 가사 모두 통도사에 있음)

(11) 卷 第四 義解第五 義湘傳教：… (조정에서는) 神印 大德 明朗에게 명하여 임시로 密壇法을 설치하고 기도하여 이를 물리치게 하니 이에 국난을 면하였다. 儀鳳 원년(676년)에 의상이 太伯山에 돌아와 조정의 뜻을 받들어 浮石寺를 창건하고 …

의상은 이에 열 곳의 절에 교를 전하게 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原州의 毗摩羅, 伽倻의 海印, 毗瑟

의 玉泉, 井의 梵魚, 南嶽의 華嚴寺 등이 그것이다.

오진은 일찍이 下柯山 鶴嵩寺에 거처하면서 매일 밤에 팔을 펴 부석사 방의 등을 켜다.

(명랑의 밀단법 설치. 676년 의상 부석사 창건, 부석사, 비마라사, 해인사, 옥천사, 범어사, 화엄사 등의 열 곳 절을 전교함)

(12) 卷 第四 義解第五 勝詮髑髏 : … 그 대략에 말하기를, 승전법사는 돌무리를 이끌고 논의 하고 강연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葛項寺이다.

(승전법사 → 갈항사에 주석, 현재 경주 토함산에 갈항사탑 남아있음)

(13) 卷 第五 神呪第六 惠通降龍 : … 왕이 심히 그렇다고 생각하여 절을 세우고 이름을 信忠 奉聖寺라고 했다. 인하여 그 노래를 부른 곳에 折怨堂을 지었는데 그 堂과 절이 지금도 남아 있다. … 이보다 앞서 密本法師의 뒤에 高僧 明郎이 있었다. 龍宮에 들어가 神印(梵文에는 文豆囊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神人이라고 했다.)을 얻어 神遊林을 처음 세우고 지금의 天王寺이다. 여러 차례 이웃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

(신충봉성사의 창건. 절원당 건립. 밀본법사의 명랑의 신인(문두루) → 신유림에 천왕사 창건)

(14) 卷 第五 神呪第六 密本摧邪 : … 또한 신라 서울 동남쪽 20여 리에 遠源寺¹⁵가 있는데 언 전에는 안혜 등 네 대덕이 金庾信·金義元·金述宗 등과 함께 발원하여 창건한 바이라 한다. 네 대덕의 유골은 모두 절의 동쪽 봉우리에 안장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四靈山 祖師窟이라고 부른다.

(원원사의 창건; 네 대덕이 김유신 김의원, 김술중 등과 발원하여 창건. 네 대덕 유골 → 절 동쪽 봉우리에 안장하여 사령산 조사암으로 칭함)

(15) 卷 第五 感通第七 眞身受供 : 長壽 원년 임진 孝昭王이 즉위하여 望德寺¹⁶를 처음 세워 당 황실의 덕을 받들게 하였다. 뒤에 景德王 14년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니

… 중이 毳毼窟¹⁷이라고 하였다. … 남산 參星谷, 혹은 大磧川源이라는 곳에 이르니 바위 위에 지팡이와 바리를 두고 사라졌다. … 비파암 밑에 釋迦寺¹⁸를 세우고, 모습을 감춘 곳에 佛無寺¹⁹를

15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던 절로, 현재 옛 절터의 밑에 새로 지은 소규모의 절이 있다. 명랑이 창건한 금광사와 더불어 문두루비법의 중심도량으로 생각된다. 文明大, 「新羅 神印宗의 研究」, 『진단학보』41(진단학회, 1976), pp. 183-209; 김복순, 「『三國遺事』 '명랑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2(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pp. 201-228.

16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에 있었던 사찰이다. 본래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만든 사천왕사를 당의 사신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맞은편에 새로 세웠는데, 당의 사신이 “望德遙山之寺”라 하였으므로 절 이름을 망덕사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절터에는 幢竿支柱(보물 제69호)와 雙塔址 등이 남아 있다.

17 경주시 내남면 비파골에 있는 바위. 『동경잡기』에 의하면 바위의 모양이 비파같이 생겨서 비파암이 되었다고 한다. 이병교, 『『三國遺事』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p. 445.

세워 지팡이와 바리를 나누어 두었다. 두 절은 지금도 있으나 지팡이와 바리는 사라졌다.

(망덕사 692년 창건. 755년 망덕사 탑 흔들림, 비파암 아래 석가사 창건. 불무사에 지팡이와 바리 안치)

(16) 卷 第五 感通第七 正秀師救水女 : 제40대 애장왕대 沙門 정수가 있었는데, 皇龍寺에 머물렀다. 겨울 날 눈이 깊게 쌓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다. 三郎寺²⁰에서부터 돌아오면서 (天嚴寺 대문 밖을 지나고 있었는데,

(삼랑사와 함께 지금은 전하지 않는 천암사의 명칭 확인)

(17) 卷 第五 避隱第八 信忠掛冠 : … 왕을 위해 斷俗寺를 세워 살면서, … [왕의] 진영을 금당 뒷벽에 두었으니 이것이다. … 天寶 7년 戊子(748)에 나이 50세가 되니, 다시 槽淵小寺를 고쳐 큰 절로 하고, 이름을 斷俗寺라 하였다.

(단속사 창건; 748년 조연소사를 고쳐 단속사 건립. 왕의 진영 금당 뒷벽에 모심)

2) 塔像의 造成

(1) 卷 第三 興法第三 東京興輪寺²¹金堂十聖 : 동쪽 벽에 앉아 庚方을 향한 진흙상은 我道, 厭禪, 惠宿, 安舍, 義湘이고 서쪽 벽에 앉아 甲方을 향한 진흙상은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이다.

(흥륜사 금당에 십성의 소상 조성 → 동벽 아도, 염촉, 혜숙, 안함, 의상, 서벽 표훈, 사파, 원효, 혜공, 자장)

(2) 卷 第四 義解第五 寶壤梨木 : 신라시대 이래로 淸道군의 사원 鵲岬寺 이하 중소사원은 삼한의 병란 중에 大鵲岬, 小鵲岬, 所寶岬, 天門岬, 嘉西岬 등 5갑이 모두 훼손되어 5갑의 기둥만 모아 대작갑사에 두었다.

… 이에 보양이 장차 폐사를 일으키려 북쪽 고개에 올라 바라보니 뜰에 5층의 황색 탑이 있었다.

¹⁸ 현재의 경북 월성군 비파동에 있던 절. 비파암과 가까운데 비파암의 동남쪽, 잡늬골의 동북쪽, 새룬골의 왼쪽에 있다. 박성봉·고경식 역, 『역주 『三國遺事』』(서문문화사, 1997), p. 350.

¹⁹ 경주 남산에 있던 절. 비파암의 북쪽, 삼형제 바위의 동쪽, 새룬골의 서북쪽에 있다. 박성봉·고경식 역, 위의 책, p. 350.

²⁰ 신라 진평왕 19년(597)에 창건된 절. 절터는 경상북도 경주시 위건동에 있고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박거물이 찬하고 요극일이 글씨를 쓴 비가 있는데 그 파편은 현재 단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三國遺事』 권5 '경흥우성조'에 보면 국사 경흥이 여기에 머물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²¹ 경주시 사정동에 있었던 것(현재 경주공고 위치)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유적지도』(1997) 신라 최초의 가람으로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대사찰이었으나 경덕왕 때 남문과 좌우의 회랑이 불타버렸다. 921년 중수하였으나 조선시대 때 소실된 뒤 폐사되었다.

… 그곳을 파보니 과연 남겨진 벽돌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었고 그것을 모아 높게 쌓아 탑을 이루고 남긴 벽돌이 없었으니 이곳이 전시대의 가람터인 것을 알았다. 절을 창건하는 것을 마치고 주석하고 인하여 작갑사라 이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법사가 여기에서 절을 창건하고 거한다는 것을 듣고 이에 5갑의 밭 5백결을 합하여 절에 헌납하였다. 淸泰 4년 丁酉에 편액을 내려 雲門禪寺라 하고 가사의 영음을 받들게 하였다.

(청도 작갑사 창사 연기 → 보양이 5층 황색탑 지하에 전탑터 위에 세움. 고려 태조 937년 운문선사 편액)

(3) 卷 第四 義解第五 良志使錫 : … 釋 良志의 조상과 고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善德王 때 자취를 나타냈을 뿐이다. … 이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을 錫杖寺²²라고 하였다. 그의 신이함을 헤아리기 어려움이 모두 이와 같은 것들이다. … 여러 가지 기예에도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또한 (그는) 筆札에도 능하여 靈廟²³의 丈六三尊과 天王像과 전탑의 기와, 天王寺 탑 밑의 八部神將, 法林寺의 주불삼존과 좌우 金剛神 등은 모두 (그가) 만든 것들이다. 영묘, 법림 두 절의 현판도 썼으며, 또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3천 불상을 만들어 그 탑에 모시어 절 안에 두고 공경하였다. 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만들 때는 … 이 때문에 성안의 남 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

(양지스님 → 석장사 주석, 기예 신묘함. 영묘사 장육삼존, 천왕상, 전탑 기와, 탑 밑 팔부중상, 법림사 주불삼존, 금강신 제작(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소조 신장상전) 영묘·법림 절 현판 제작, 벽돌탑 제작과 3천불상(소조불) 제작. 소조상 제작 시 성안의 인원을 동원하여 진흙 나름)

(4) 卷 第四 義解第五 元曉不羈 : … (성사께서) 입적하자 설총이 유해를 부수어 (그의) 眞容을 빚어 분황사에 봉안하고, 공경·사모하여 지극한 슬픔의 뜻을 표하였다. 설총이 그때 옆에서 예배를 하니 소상이 갑자기 돌아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 원효가 일찍이 살던 穴寺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다고 한다.

(설총이 원효 유해로 진공 제작하여 분황사 봉안. 원효의 혈사 옆 설총의 집터)

22 경주시 석장동에 있던 절로, 1986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의해 발굴되었다. 유물로는 금동불상, 탑상문전, 소장, 명문전 등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의 특징이 주로 서역풍이라는 점과 통일신라 이후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양지가 서역인이었고, 그 활동시기가 통일기 이후였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강우방, 「新良志論 - 良志의 活動期와 作品世界」, 『미술자료』47(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1-26.

23 신라 善德女王 대에 경주에 세워진 사찰이다. 경주시 사정동 국당리를 靈廟寺址로 추정한다. 신라왕실에서 중시하여 수재, 또는 한재가 있을 때 그 절의 남쪽 청연에서 오성제를 올렸으며, 靈廟寺成典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두어 운영하였다. 이근직,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20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2), pp. 79-97.

(5) 卷 第四 義解第五 義湘傳教 : … 表訓은 일찍이 佛國寺에 있으면서 항상 天宮을 왕래하였다. 義湘이 皇福寺에 있을 때 무리들과 함께 탑을 돌았는데, 매번 허공을 밟고 올라갔으며 계단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탑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표훈 불국사에 주석함. 의상이 주석시 황복사 탑돌이 하였고 탑에는 사다리가 없었음)

(6) 卷 第四 義解第五 關東楓岳鉢淵藪石記 : 眞表는 교법을 받기를 마치자 金山寺를 창건하고 자 산에서 내려왔다. … 진표는 시주를 권하여 미륵장육상을 조성하게 하였다. 또 금당의 남쪽 벽에 내려와서 계법을 주는 威儀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甲辰年(764) 6월 9일에 조성되어 丙午年(766) 5월 1일에 금당에 안치되었으니, 이 해는 大曆 원년(766)이다.

(진표의 금산사 창건과 미륵장육상 조성, 금당 남쪽 벽에 위의 계법을 주는 위의의 벽화 그림 → 764년 조성, 766년 금당 안치)

(7) 卷 第四 義解第五 賢瑜珈海華嚴 : 유가종의 개조 大賢 대덕은 南山 葺長寺에 거하였다. 절에 미륵석조장육상이 있었는데 대현이 항상 그 돌레를 돌면 불상 또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

(유가종의 개조 대현스님 → 남산 용장사 거주. 석조 미륵장육존상, 머리가 탈락된 채로 현지에 보존됨)

(8) 卷 第五 神呪第六 密本摧邪 : … 興輪寺 吳堂의 주존인 미륵존상과 좌우 보살을 소상으로 만들고 아울러 그 당에 금색 벽화를 채웠다. 일본은 일찍이 金谷寺²⁴에 머물렀다.

(흥륜사 주존 → 소조의 미륵존상, 좌우보살상, 금색 벽화 제작. 일본스님 금곡사 거주)

(9) 卷 第五 神呪第六 明朗神印 : … 이에 집을 버려 절로 만들어서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꾸몄더니 광채가 특별하였고 인하여 금광이라 이름하였다. 《僧傳》에는 金羽寺라 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제작하여 금광사라 함)

(10) 卷 第五 感通第七 眞身受供 : 長壽 원년 壬辰 孝昭王이 즉위하여 望德寺를 처음 세워 당황실의 덕을 받들게 하였다. 뒤에 景德王 14년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니 …

(692년 효소왕 원년 망덕사 창건, 755년 망덕사 탑 흔들림)

(11) 卷 第五 避隱第八 迎如師 布川山 五比丘 景德王代 : 敵良州의 동북쪽 20여리에 (布川山

²⁴ 경상북도 경주시 강서면 두류리 삼기산에 있던 절로, 현재 법당 앞에 삼층석탑이 원광법사의 부도로 전하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강인구 외, 『역주 『三國遺事』』4(이화문화사, 2002-2003), p. 213.

에 석굴²⁵이 있어 기이하고 빼어나 사람이 깎은 듯하였다. 다섯 比丘가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다. … 이 다섯 비구가 각기 蓮臺에 앉아, 허공을 타고 가서 通度寺의 문 밖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 그 버린 곳에 절의 스님들이 亭榭를 세워, 이름을 置樓라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포천산(지금의 원효산)에 자연 암반에 일부 인공을 가미한 석굴과 통일신라 불상이 남아있음. 경덕왕대에 조성되어 다섯 비구가 거주한 사실. 통도사에 머문 사실과 버린 자리에 치루라는 정사를 세움)

(12) 卷 第五 避隱第八 念佛師 : 南山の 동쪽 기슭에, 避里村이 있고, 마을에 절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이 避里寺라고 하였다. … 죽은 후에 흙 인형으로 眞儀를 만들어, 敏藏寺²⁶에 안치하고, 그 본래 살던 피리사는 이름을 고쳐서 念佛寺라 하였다.

(흙으로 만든 진용을 만들어 민장사에 안치한 점. 피리사를 염불사로 개칭)

(13) 卷 第五 孝善第九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 … 꿈을 위하여 그(꿈을) 잡았던 땅에 長壽寺를 창건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동된 바가 있어, 자비의 悲願이 더 두터워졌다. 이에 現생의 양친을 위해 佛國寺를 창건하고, 전세의 부모를 위해 石佛寺를 창건하고, 神琳·表訓의 두 성스러운 스님을 청하여 각각 머물게 하고, 거대한 불상을 설치하고, … 장차 石佛을 조각하려고 큰 돌 하나를 감실의 뚜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돌이 갑자기 셋으로 깨졌다. (대성은) 분노하여 아무렇게나 잠들었다. 밤 중에 천신이 내려와서, 다 만들고는 돌아갔다. … 그 불국사의 사다리(雲梯)와 석탑은 돌과 나무에 새긴 업적이 경주의 여러 사찰 중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불국사와 석불사의 창건 연기 → 신림과 표훈을 각각 주석케 하였고 본존불 제작. 감실 뚜껑이 셋으로 갈라진 것은 천신이 맞추었다는 설화; 현재도 셋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맞추어 놓음)

3) 戒壇과 舍利信仰

(1) 卷 第四 義解第五 二惠同塵 : … 그에게는 靈迹이 자못 많았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하늘에 뜬 채 입적하였고 舍利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2) 卷 第四 義解第五 眞表傳簡 : 眞표는 이미 미륵보살의 기별을 받자 금산사에 와서 살았다.

²⁵ 경상남도 양주군 웅상면에 있는 원효산에 있는 신라 때의 석굴 사원으로 미타암으로 불린다. 자연 수성암으로 이루어진 자연 굴에 인공을 가하여 만들었으며 석굴 내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아미타불입상이 있다. 文明大, 「布川山 石窟考」, 『東國史學』11(동국사학회, 1969), pp. 113-125.

²⁶ 경주에 있던 절로 角干 敏藏이 자기 집을 희사하여 창건하였다. 『三國遺事』 卷3 塔像第四 敏藏寺條 “其母就敏藏寺(寺乃敏藏角干捨家爲寺)”

… 이때가 곧 천보 11년 壬辰 2월 15일이다. 어떤 책에는 元和 6년(811)이라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 … 이를 모두 받아서 여러 사찰에 나누어주고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 그 사리는 지금 鉢淵寺에 있으니 곧 바다 생물들을 위해 계를 준 곳이다. … 을사는 세상을 뜰 때 절의 동쪽 큰 바위 위에 올라 죽으니 제자들이 시신을 옮기지 않고 공양하고 해골이 흩어져 떨어질 때에 이르러 흙을 덮어 묻고 이에 무덤으로 삼았다. 나는 법사의 뼈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丁巳年(1197) 9월 특별히 소나무 밑에 가서 뼈를 모아 통에 담으니 3흡 가량이 되었다. 큰 바위 아래 두 나무 밑에 돌을 세워 뼈를 안장하였다고 했다.

(진표가 금산사에 기거한 시기(752년)와 여러 사찰에 분사리하여 불사를 일으켰으며 발연사에 있는 계단이 바다 생물들을 위해 계를 준 곳이란 점, 해골에 직접 흙을 덮어 무덤으로 삼고 1197년 화장하여 통에 담아 나무 밑에 안장함)

4) 佛敎建築

(1) 卷 第四 義解第五 賢瑜珈海華嚴 : 경덕왕 天寶 12년 癸巳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어 … 낮에 강론할 때에 이르러 향로를 들고 말없이 있으니, 잠깐 동안 우물의 물이 솟아 나와 그 높이가 7丈 가량이 되어 刹幢과 더불어 같게 되었는데, … 다음날 感恩寺에서 아뢰기를 “어제 午時에 바닷물이 넘쳐서 佛殿의 섬돌 앞까지 이르렀다가 저녁 무렵에 물러났습니다”라고 하였다.

(병향로의 사용과 용도, 7장 높이의 칠당(당간)의 존재, 불전(금당) 앞에까지 물이 들어온 당시 감은사의 상황)

(2) 卷 第五 孝善第九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 … “景德王대에 大相 大城이 天寶 10년 辛卯에 불국사를 처음 창건하였다. 혜공왕대를 지나, 大歷 9년 甲寅(774) 12월 2일에 대성이 죽자, 국가가 이를 완성하여 끝마쳤다. 처음에는 瑜珈大德 降魔를 청하여 이 절에 머물게 하였고, 그것을 이어 지금에 이르렀다.”

(김대성의 불국사 창건 751년, 774년 김대성 죽자 국가가 완성, 유가종 대덕 항마가 처음 주석함 → 유가종과의 관련성 시사)

5) 佛敎繪畫

(1) 卷 第四 義解第五 關東楓岳鉢淵藪石記 : 眞表는 교법을 받기를 마치자 金山寺를 창건하고자 산에서 내려왔다. … 다시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감응하여 구름을 타고 내려와 진표에게 계법을 주었는데, 진표는 시주를 권하여 미륵장육상을 조성하게 하였다. 또 금당의 남쪽 벽에 내려와서 계법을 주는 威儀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甲辰年 6월 9일에 조성되어 丙午年(766) 5월 1일에

금당에 안치되었으니, 이 해는 大曆 원년이다.

(진표의 미륵장육상 조성. 금당 남쪽 벽 위의 벽화 → 764년에 조성하여 766년 5월 금당 안치)

(2) 卷 第五 神呪第六 密本摧邪 : … 興輪寺 吳堂의 주존인 미륵존상과 좌우 보살을 소상으로 만들고 아울러 그 당에 금색 벽화를 채웠다. 밀본은 일찍이 金谷寺²⁷에 머물렀다.

(흥륜사의 주존으로 미륵상과 좌우 보살 소상으로 제작. 금색 벽화 제작. 밀본이 금곡사에 주석한 점)

(3) 卷 第五 感通第七 仙桃聖母隨喜佛事 : 진평왕대에 智惠라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 행실이 많았다. 安興寺에 살면서 새로 佛殿을 닦고자 하였으나 힘이 모자랐다. … “나의 자리 밑에서 금을 취하여 主尊과 三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 53부처와 六類聖衆 및 여러 天神, 五岳神君을 그리고 (신라시대의 오악은 동쪽 吐舍山, 남쪽 智異山, 서쪽 鷄龍山, 북쪽 太白山, 중앙 父岳 또는 公山이라고 한다.)

(비구니 지혜가 조성한 삼존상. 벽에 53불 육류성증, 천신과 오악신군 벽화로 제작, 신라 오악 명칭 확인)

(4) 卷 第五 感通第七 憬興遇聖 : … 비구니는 드디어 문을 나가서 곧 南巷寺(삼랑사 남쪽에 있다.)로 들어가 숨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十一面圓通像 탕화 앞에 있었다.

(남향사에 십일면 원통상(관음) 불화를 제작함)

(5) 卷 第五 感通第七 月明師兜率歌 : … 景德왕 19년 경자년(760)에 4월 초하루에 두해가 나타나 … 동자는 內院의 탑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 벽화의 미륵보살상 앞에 있었다.

(760년 내원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보살상 벽화)

6) 佛敎工藝

(1) 卷 第五 神呪第六 密本摧邪 : 善德王 德曼이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는데, … 密本은 宸仗 밖에서 《藥師經》을 읽었다. 卷軸이 한번 돌아, 가지고 있던 六環杖이 칩진 안으로 날아 들어가서 …

(밀본 법사가 지녔던 육환장의 존재)

(2) 卷 第五 感通第七 月明師兜率歌 : … 왕이 가상히 여겨 좋은 차 1봉과 수정 염주 108개를

²⁷ 경주시 강서면 두류리 삼기산에 있던 절로, 현재 범당 앞에 삼층석탑이 원광법사의 부도로 전하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강인구 외, 앞의 책(2002-2003), p. 213.

하사하였다. …

(수정으로 만들어진 염주 108개 하사)

(3) 卷 第五 孝善第九 眞定師孝善雙美 : 하루는 어떤 스님이 문 앞에 이르러 절을 지을 철물을 구하자, 어머니는 철 솔로 시주하였다.

(절을 지을 때 금속을 모으고자 철 솔을 시주한 점)

(4) 卷 第五 孝善第九 孫順埋兒 興德王代 : 孫順이란 사람은 古本에는 孫舜이라 썼다. … 북쪽 교외에 가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돌로 만든 종이 나와 심히 기이하였다. … 이에 아이와 종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들보에 매달아 두드리니, 소리가 귓속까지 들렸다. 興德王이 이것을 듣고, … 손순은 옛 거처를 절로 하고, 弘孝寺로 이름하였고, 석종을 안치하였다.

(돌 종의 출현, 손순의 거처에 지어진 흥효사의 연혁과 석종 안치)

7) 고대 博物館의 기원

(1) 卷 第一 紀異第一 延鳥郎 細鳥女 : …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잘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貴妃庫라 하였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迎日縣 또는 都祈野라 하였다.

(왕의 창고를 貴妃庫라 칭하고 비단을 보관. 하늘에 제사지낸 곳 → 영일현, 도기야)

(2) 卷 第二 紀異第二 万波息笛 : …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月城의 天尊庫에 간직하였다.²⁸ … 이를 萬波息笛으로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월성에 天尊庫란 명칭의 수장고가 있었으며 이곳에 만파식적 보관)

III. 맺음말

지금까지 일연스님의 『三國遺事』를 전편에 걸쳐 분석하고 미술사 관련 자료만을 발췌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三國遺事』에는 미술사 연구 분야에서

²⁸ 유사한 내용은 권4 탑상편 栢栗寺條에 보인다. …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선 왕께서 神笛을 얻어서 짐에게 몸소 전하여 지금 玄琴과 함께 內庫에 간직해 두었는데, 무슨 일로 국선이 갑자기 적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 일을 어찌하여야 종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 때마침 상서로운 구름이 天尊庫를 덮었다.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塔像 編 외에도 기타의 여러 편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분량의 미술사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이 파악된다. 이들은 대체로 탐상 편에 실린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만 부연 설명이나 강조하는 내용을 보태기도 하여 또 다른 자료를 제공해 준다. 특히 일부에서는 탐상 편에 누락된 미술사 관련 내용이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관련 자료의 분야별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분화하여 분석해 볼 수 있었다.

탐상편 소재 미술사 자료	사지의 창건과 연혁	폐사지의 위치 확인	불교조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불탑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계단과 불사리 신앙	불교공예	불교회화	고대 박물관의 기원	
	10	3	11	6	3	5	4	1	43
기타편 소재 미술사 자료	사지의 창건과 연혁	불교건축	탐상의 조성		계단과 불사리 신앙	불교공예	불교회화	고대 박물관의 기원	
	17	2	13		2	4	5	2	45
계	27	5	30		5	9	9	3	88

첫째,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관련 자료는 탐상 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탐상 편에서 제외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게재가 꽤 많은 곳에서 등장되었다. 즉 第二 紀異第二 万波息笛 조에 보이는 感恩寺 창건 시기와 文武王 관련 유적, 감은사 건물지의 특이성, 第二 紀異第二 武王 조에 보이는 彌勒寺의 창건 인연과 가람배치, 第四 義解第五 二惠同塵 조에서 등장하는 포항 吾魚寺의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第四 義解第五 良志使錫조는 통일신라 불교조각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작자였던 양지의 작품세계를 다루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第五 神呪第六 明朗神印 조에 나타나는 神印宗의 개창주인 명랑의 행적, 삼국 말~통일신라 초에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던 四天王寺의 창건과 그에 관련된 연혁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중요하다.

第五 避隱第八 布川山 五比丘 景德王代조는 이미 논문으로 여러 차례 다루고 있지만 통일신라에서 조성되었으나 잊혀진 또 다른 석굴사원의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三國遺事』의 미술사적 가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기록이 바로 第五 孝善第九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미술사의 최고의 걸작인 불국사와 석굴사에 대해서 그 어느 자료보다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자칫 사라질뻔한 고대 불교미술의 생생한 일면을 제공한 일연스님의 공로를 잊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탐상 편에 소개된 미술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선 고대 사원의 창건시기와 조성배경과 같은 연혁을 다룬 글이 10편 정도로서 여기에는 한 편에 몇 개의 사찰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불교미술 뿐 아니라 불교사에서 사찰의 연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역시 皇龍寺의 창건과 慈藏律師와 관련된 月精寺, 水多寺, 淨巖寺 부분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라진 폐사지의 사찰명이나 위치 확인에 큰 역할을 하는 3개의 사찰명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불교조각과 불탑의 자료는 각각 11건과 6건으로 상대적으로 불교조각의 관련된 자료가 월등히 많았다. 그 가운데 불교조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자료를 들자면 皇龍寺 丈六像, 芬皇寺 藥師銅像을 포함하여, 靈妙寺의 丈六尊像을 다룬 내용이다. 이 밖에도 四佛山 四方佛, 掘佛寺 四方佛은 한국 사방불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초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남산 生義寺 石彌勒과 甘山寺 두 불상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삼국 및 통일신라 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지대하다. 다음으로 불탑은 불상에 비해 소략하지만 역시 皇龍寺 九層木塔을 가장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찰주를 포함한 황룡사 목탑의 낙뢰, 중수 사실까지 소상하게 기록한 점은 지금은 사라진 황룡사 목탑의 과거사를 고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 평가받는다. 그 외에 고구려의 土塔과 木塔에 관한 자료도 주목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탑상 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戒壇과 舍利信仰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황룡사 구층탑에 봉안된 사리를 포함하여 자장율사가 가지고 온 眞身舍利에 관한 내용을 전 후소장사리 편에서 매우 소상하게 다루고 있어 신라 및 통일신라 사리기 및 사리신앙 연구에 귀중한 일조를 한다. 특히 그 내용은 통도사 금강 계단 안에 봉안된 사리의 봉안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한 유일한 기록인 점에서 주목되는데, 내부에 작은 석함이 있고 이 함에 유리통(유리 사리병으로 추정)이 있어 4과의 사리가 있으며 유리병이 조금 상해 금이 간 곳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이 때 수정함을 추가로 사리함에 봉납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때가 을미년 1235년으로서 백 개의 사리가 4과 뿐이라는 소감을 피력하여 사리의 매우 적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진신 사리에 관련된 가장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851년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어금니를 오랜 기간 내전에 봉안하다가 몽고의 전화에 잃어 버렸다 다시 찾은 사실도 자세히 기록하는 등 승려로서 불사리 신앙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지니고 있음이 간취된다.

다음으로 탑상 편에서는 불교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범종을 다룬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조에서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경덕왕 754년에 황룡사 종이 주조되었으며 크기 1장 3촌, 49만 7천 5백 81근이란 중량까지 정확히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현존하는 성덕대왕 신종의 12만근보다 3배 이상의 금속이 소요된 점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366cm보다 최소 두 배 가까운 크기였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 범종의 최고의 걸작인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에 기록된 내용과 부합되는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경덕왕이 완성치 못함에 따라 손자인 혜공왕 771년에 주조하여 봉덕사에 안치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봉덕사가 738년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사실을 기록하여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四佛山·掘佛

山·萬佛山 조에 보이는 기록을 통해 통일신라 범종의 명칭에서 지금 龍鈕라고 불리는 종을 거는 고리 부분이 고래를 무서워 한다는 葡牟로 불리었으며 지금은 사라진 撞木의 모양을 고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라 사리기의 구성과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前後所藏舍利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금니를 넣은 사리기의 구성이 안쪽에 침향으로 함을 만들고 그 바깥은 순금함, 다시 백은함과 바깥에 유리로 함을 만들고 바깥 겹은 나전함으로 중첩 봉안하는 방식을 직접 관찰한 것처럼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함과 함을 구별한 것으로 보아 뚜껑의 유무에 따라 함과 함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각 함의 폭의 크기를 줄여가며 중첩되도록 만든 것을 시사하지만 현재 유리함만 남아있다고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사리기가 대부분 유리가 가장 안쪽이며 금→은→동함으로 만든 것에 비해 유리의 봉안 순서가 다르고 바깥 상자에 나전함을 썼다는 것을 통해 신라 사리기의 또 다른 사리장엄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불교회화 자료는 비교적 적은 4편에 불과하지만 주로 千手千眼觀音, 普賢菩薩, 11面觀音과 같은 밀교와 관련있는 변화 관음상을 벽화 위주로 제작한 사실을 밝혀준다. 마지막으로 단편적이지만 신라 궁내에서 보물 창고의 역할을 한 天尊庫란 수장고 시설과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탑상 편 이외 편에서 보이는 미술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찰과 창건과 연혁을 다룬 것이 17편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탑상 편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사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자장율사 행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第四 義解第五 慈藏定律 조로서 여기서 자장이 月精寺와 水多寺²⁹를 창건한 명확한 창건 내용과 石南院(지금의 淨岩寺)에서 입적한 기록을 통해 당시 자장의 행적이 보다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 나아가 기록된 자장이 세운 10개의 탑과 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리라 본다.

그 다음 탑상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효는 불교조각이 9편, 불탑이 4편으로서 탑상 편에 비해 적지만 良志使錫, 布川山 五比丘, 大城孝二世父母 조는 『三國遺事』가 지닌 미술사적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불교조각의 경우 東京興輪寺金堂十聖, 元曉不羈 密本摧邪에 보이는 내용처럼 塑造像에 관련 기록이 많다는 것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소조상의 제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유가종의 개창주인 대덕 대현스님과 관련된 남산 葺長寺와 봉안된 미륵석조장육상은 『三國遺事』를 통해 그 실체가 입증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나아가 현존하는 雲門寺의 전신이었던 烏鵲岬寺에 관한 창건 당시 상황 및 博塔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게

²⁹ 水多寺址에 관해서는 1988년 신종원 교수가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다. 절터는 강원도 평창군 水項里的 천변 위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농지로 변했지만 사지에는 후대에 다시 결구된 고려시대 석탑이 한 기 세워져 있다. 특히 사지에서는 靑銅 金鼓와 고려시대 大定28年銘(1188) 청동춧대, 1199년명 鉢盂가 발견되어 고려후기까지 사세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웅천, 「수다사지(水多寺址) 출토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의 성격과 명문」, 『강좌미술사』47(한국미술사연구소, 2017), pp. 233-250.

평가된다.

다음으로 戒壇과 舍利 信仰에 관한 것은 탑상 편에서 이미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거기서 찾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진표율사에 관련된 기록 부분이다. 금산사에 봉안되었던 사리를 나누어 金剛山 鉢淵寺에 나누어 썼다는 기록은 왜 지금 발연사에 금산사 계단과 동일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주는 자료이다. 특히 발연사 계단 외벽에 바다 생물의 조각이 있는 점은 바다 생물들을 위해 계를 준 곳이라는 일연스님의 설명과 잘 부합되는 점에서 흥미롭다.

두 편의 불교건축 자료 중에서 賢瑜珈海華嚴 조에 보이는 感恩寺 내용 중에 “어제 午時에 바다 물이 넘쳐서 佛殿의 섬돌 앞까지 이르렀다가 저녁 무렵에 물러났습니다”라고 한 내용은 감은사가람 바로 앞 쪽까지 강이었으며 실제로 배를 이용하여 절로 오르내렸다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깊다. 또한 大城孝二世父母 神文의 마지막 구절인 절의 기록에 이르길 “景德王대에 大相 大城이 天寶 10년 辛卯에 불국사를 처음 창건하였다. 惠恭王代를 지나, 大歷 9년 甲寅(774) 12월 2일에 대성이 죽자, 국가가 이를 완성하여 끝마쳤다. 처음에는 瑜珈大德 降魔를 청하여 이 절에 머물게 하였고, 그것을 이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내용은 불국사의 창건이 751년 김대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최소 774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다시 국가에서 마쳤다는 점을 밝혀주어 최소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불국사와 석굴암 관련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유가대덕을 모셔 향마를 청했다는 점에서 불국사 및 석불사의 종파 연구에 귀중한 일조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교회화는 5편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仙桃聖母隨喜佛事 조에는 金으로 主尊과 三像을 도금하고 벽 위에 53불과 六類聖衆 및 여러 天神, 五岳神君을 그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여 주목된다. 불교공예는 개별 설명이 없는 단편적인 六環杖, 水晶念珠, 철 술, 石鐘에 관한 자료인데, 석종은 비록 현존하지 않지만 현재 弘孝寺址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와 위치 확인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고대 수장고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天尊庫에 관련된 기록 이전에 延鳥郎 細鳥女 조에는 貴妃庫라는 귀중한 국가의 보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미술사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일연스님은 당시 미술사의 관련 내용 가운데 탑상 편을 따로 두었지만 정확한 미술사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보다는 전부터 전해오는 고대의 자료를 섭렵하고 이를 분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황룡사와 황룡사 9층목탑, 그리고 자장과 관련된 여러 연기, 또한 스님이라는 신분상 매우 귀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불사리 관련 부분임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는 그동안 많은 역사학자, 불교학자, 미술사학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한편에서는 『三國遺事』만을 분석한 여러 권의 저서³⁰도 집필되었다. 『三國遺事』가 중요한 점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라진 삼국, 통일신라의 역사, 불교사, 사찰의 창건과 연혁, 불교

미술품의 조성 배경과 같은 그야말로 고대 불교미술을 복원할 수 있는 당시의 훌륭한 역사 교과서이자 최초의 문화유산 답사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그 존재를 잃어버린 사찰의 위치나 명칭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금은 간과한 당시 불교 사상과 고승의 행적까지 낱낱이 제공해 준다. 필자 역시 짧은 시간 관계상 다양하고 방대한 관련 연구 문헌을 다 참고할 수 없어 일단 미술사 관련 기록만을 모두 발췌해 빠짐없이 수록하고 간략한 검토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을 밝혀둔다.

주제어(Key Words)

『三國遺事』(Samgukyusa), 일연(Iryeon), 미술사(Art History), 탑상편(Tapsangpyeon), 폐사지(Temple site), 불교조각(Buddhist sculpture), 불탑(Buddhist pagoda), 계단(Ordination platform), 불사리(The Buddha's relic), 불교공예(Buddhist Crafts), 불교회화(Buddhist painting), 박물관(Museum), 감은사(Gameunsa), 불국사(Bulguksa), 석굴암(Seokguram), 황룡사(Hwangnyongsa), 황룡사 9층목탑(The nine-story wooden stupa of Hwangnyongsa Temple), 자장(Jajang).

30 신종원, 『『三國遺事』 새로 읽기(1)- 기이편(紀異篇)』(일지사, 2004), p. 267; 신종원, 『『三國遺事』 새로 읽기(2)』(일지사, 2011), p. 276; 신종원, 『『三國遺事』 깊이 읽기: 우리 고전으로 벌이는 잔치 열 마당』(주류성, 2019), p. 317; 최광식 편저, 『『三國遺事』의 세계』(세창출판사, 2018), p. 627.

〈참고문헌〉

-원전

『三國遺事』

-단행본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패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1』, 이화문화사, 2002.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경주유적지도』, 국립경주박물관, 1997.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문명대, 『한국불교회화사』. 다할미디어, 2021.

박성봉·고경식 역, 『역주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7.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 1, 기이편(紀異篇)』, 일지사, 2004.

_____, 『삼국유사 새로 읽기 2』, 일지사, 2011.

_____, 『삼국유사 깊이 읽기: 우리 고전으로 별이는 잔치 열 마당』, 주류성, 2019.

이남석·서정석·공주대학교박물관, 『대통사지』,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하』, 민족사, 2005.

이하석, 『삼국유사의 현장기행』, 문예산책, 1995.

최광식 편저,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8.

황수영,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논문

강우방, 「新良志論: 良志의 活動期와 作品世界」, 『미술자료』47, 국립중앙박물관, 1991.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진단학보』39, 진단학회, 1975.

_____,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佛像」, 『진단학보』46·47, 진단학회, 1979.

김복순, 「『삼국유사』 '명당신인'조의 구성과 신인종 성립의 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김태식, 「駕洛國記 所載 許王后 說話의 性格」, 『한국사연구』102, 한국사연구회, 1998.

文明大, 「포천산(布川山) 석굴고(石窟考)」, 『동국사학』11, 동국사학회, 1969.

_____,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 = 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역사학보』62, 역사학회, 1974.

_____, 「新羅 神印宗의 研究」, 『진단학보』41, 진단학회, 1976.

_____, 「三國遺事 南白月二聖條와 新羅 法相宗美術 -法相宗美術研究 5-」, 『美術史學』3, 미술사학연구회, 1991.

이거룡, 「파사석탑(婆娑石塔)의 유래와 조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36,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이근직,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新羅文化』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이호영, 「신라 중세왕실과 봉덕사」, 『史學志』9, 단국사학회, 1974.

지강이, 「왕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18, (제)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단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0.

최웅천,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特히 鑄造方法과 銘文分析을 中心으로」, 『佛教美術』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_____, 「수다사지(水多寺址) 출토(出土)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의 성격과 명문」, 『강좌미술사』47, 한국불교미술사 학회,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黃壽永, 「新羅皇龍寺刹柱本記：(九層木塔 金銅塔誌)」, 『미술자료』16, 국립중앙박물관, 1973.

_____,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그 사리구」, 『東洋學』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3.

『三國遺事』에는 塔像編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편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분량의 미술사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술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탑상 편에는 사지의 창건과 연혁이 10건, 폐사지의 위치 확인이 3건, 불교조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이 11건이었고 불탑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6건, 계단과 불사리 신앙 3건, 불교공예 5건, 불교회화 4건, 박물관의 기원 1건으로서 모두 43건 정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는 불교조각이 가장 많은 수효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 편에 수록된 미술사 자료는 사지의 창건과 연혁이 17건, 불교 건축이 2건이며 탑상의 조성이 13건, 계단과 불사리 신앙 2건, 불교공예 4건, 불교회화 5건, 고대 박물관의 기원 2건으로서 45건이 확인되며 그 중에서 사지 창건과 연혁 부분이 가장 많은 17건이었다. 기타 편에 보이는 미술사 자료는 탑상 편에 실린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만 부연 설명이나 강조하는 내용을 보태기도 하였고 일부에서는 탑상 편에 누락된 미술사 관련 내용이 보이는 점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三國遺事』에 보이는 미술사 관련 자료는 탑상 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탑상 편에서 제외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게재가 꽤 많은 곳에서 등장된다.

둘째, 『三國遺事』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고대 사원의 창건시기와 조성 배경과 같은 연혁을 다룬 글이 도합 27편에 달한다. 여기에는 한 편에 몇 개의 사찰이 동시에 언급되기도 하지만 불교 미술 뿐 아니라 불교사에서 사찰의 연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불교조각과 불탑의 자료는 도합 30편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불교조각의 관련된 자료가 월등히 많았다. 또한 탑상 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戒壇과 舍利信仰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들은 황룡사 구층탑에 봉안된 사리를 포함하여 신라 및 통일신라 사리기 및 사리신앙 연구에 귀중한 일조를 한다. 한편 불교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범종을 다룬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 조에서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경덕왕 754년에 황룡사 종의 주조되었으며 크기 1장 3촌, 49만 7천 5백 81근이란 중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현존하는 성덕대왕 신종의 12만근보다 3배 이상의 금속이 소요된 점에서 366cm보다 최소 두 배 가까운 크기였다고 추정된다. 통일신라 범종의 명칭에서 지금 龍鈕라고 불리는 종을 거는 고리 부분이 고래를 무서워 한다는 葡牟로 불리었으며 지금은 사라진 撞木의 모양을 고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라 사리기의 구성과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어금니를 넣은 사리기의 구성이 안쪽에 침향으로 함을 만들고 그 바깥은 순금함, 다시 백은함과 바깥에 유리로 함을 만들고 바깥 겹은 나전함으로 중첩 봉안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함과 함을 구별한 것으로 보아 뚜껑의 유무에 따라 함과 함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각 함의 폭이 크기를 줄여가며 중첩되도록

만든 것을 시사한다. 불교회화 자료는 비교적 적은 3편에 불과하지만 주로 千手千眼觀音, 普賢菩薩, 11面觀音과 같은 밀교와 관련있는 변화 관음상을 벽화 위주로 제작한 사실을 밝혀준다. 마지막으로 단편적이지만 신라 궁내에서 보물 창고의 역할을 한 天尊庫란 수장고 시설과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탑상 편 이외 편에서 보이는 미술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찰과 창건과 연혁을 다룬 것이 17편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탑상 편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사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탑상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효는 불교조각이 9편, 불탑이 4편으로서 탑상 편에 비해 적지만 良志使錫, 迎如師 布川山 五比丘, 大城孝二世父母 조는 『三國遺事』가 지닌 미술사적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불교조각의 경우 塑造像에 관련 기록이 많다는 것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소조상의 제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유가종의 개창주인 대덕 대현스님과 관련된 남산 葺長寺와 봉안된 미륵석조장육상은 『三國遺事』를 통해 그 실체가 입증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戒壇과 舍利 信仰 관한 기록 가운데 금산사에 봉안되었던 사리를 나누어 金剛山 鉢淵寺에 나누어 줬다는 기록은 왜 지금 발연사에 금산사 계단과 동일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주는 자료이다.

두 편 of 불교건축 자료 중에서 感恩寺 관련 기록과 불국사 창건에 관련된 내용은 751년 김대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최소 774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다시 국가에서 마쳤다는 점을 밝혀주어 최소 30여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불국사 석굴암 관련 제작 시기를 규명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교회화는 그리 많지 않지만 벽 위에 53불과 聖衆 및 天神, 五岳神君을 그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불교공예는 개별 설명이 없는 단편적인 六環杖, 水晶念珠, 철 술, 石鐘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아쉬움을 준다. 고대 수장고인 天尊庫에 관련된 기록 이전에 貴妃庫라는 국가의 보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연스님은 미술사 관련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탑상 편을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미술사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전문적인 지식 보다는 전부터 전해오는 고대의 자료를 섭렵하고 이를 보완하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황룡사와 황룡사 9층목탑, 그리고 자장과 관련된 여러 창사의 연기, 또한 스님이라는 신분상 매우 귀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불사리 신앙과 관련된 부분으로 파악된다.

〈Abstract〉

Analysis and Review of the Art History Materials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Choi, Eung Chon *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yusa, 1285), compiled by a Goryeo monk named Iryeon, is one of the oldest extant books on Korean history. The chapter titled 'Pagodas and Images' (Tapsangpyeon) contains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Korean art. A close examination of the chapter revealed that it contains information about forty-three references to Korean art history, including ten references to the foundation and chronology of Buddhist temples, three on the locations of closed temples, eleven on the production dates and backgrounds of Buddhist sculptural works, six on the construction dates and backgrounds of pagodas, three on ordination platforms and sarira worship, five on Buddhist arts and crafts, four on Buddhist painting, and one on the origins of museums. Of these references, the largest number of cases concerns Buddhist sculpture.

The book also contains forty-five references to Korean Buddhist art history in its other chapters, including seventeen on the foundation and chronology of Buddhist temples, two on Buddhist architecture, thirteen on the construction of pagodas and images, two on ordination platforms and sarira worship, four on Buddhist arts and crafts, five on Buddhist painting, and two on the origins of museum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hapters of the book requires a careful review for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because some entries overlap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hapter on pagodas and images as they were intended to provide an additional explanation or to emphasize certain facts, while others contain information omitted from the aforementioned chapter.

It seems that Iryeon wrote the chapter on pagodas and images in order to focus on information about the Buddhist art of his country, indicating that he was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Buddhism's artistic heritage. The intention behind the arrangement of the chapter seems to have been to bring together and supplement old materials rather than to introduce concepts related with art history or specialized knowledge. It is noteworthy that of the numerous Buddhist topics covered in the book, Iryeon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 Professor, Dept.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Seoul

Hwangnyongsa Temple and its famous Nine-Story Wooden Pagoda, the Buddhist temples established by the eminent Silla monk Jajang, and the relics (sarira) of Shakyamuni Buddha, which must have been invaluable objects of worship for devout Buddhists like him.

논문투고일: 2021.06.11. | 심사개시일: 2021.06.11 | 심사완료일: 2021.07.01